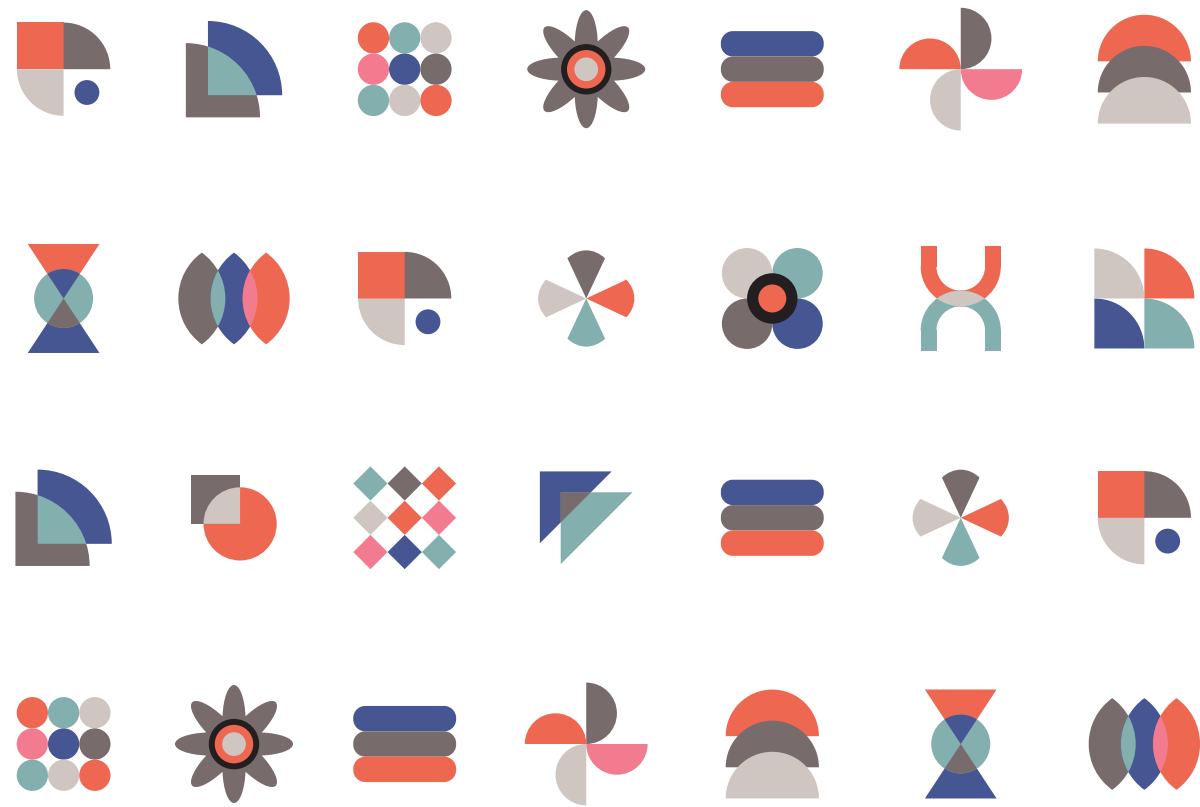


함께 만든 변화의 이야기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FINAL REPORT



발행처 한국여성재단 발행일 2025년 6월 기획&편집 지원사업1팀 디자인 디자인 바이 우주정거장

1.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

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06
나.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08
다. 한국여성노동자회	10
라. 한국여성단체연합	12
마.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14
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6
사. 서울YWCA	18
아. 여성환경연대	20

2. 여성운동 활성화와 연대

가. 여성감독네트워크(WDN) _ 차세대여성운동	22
나. 한국여성민우회 _ 수시지원	24
다. 한국YWCA연합회 _ 수시지원	26

3. 기부자 명단

28

4. 성평등기금 모금 캠페인 광고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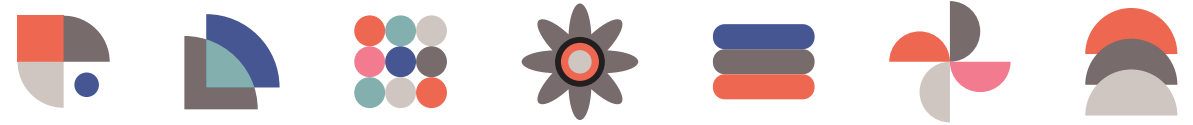
5. 한국여성재단 사업 소개

35

한 눈에 보는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성·계급·인종·장애 등으로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비영리여성단체 사업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차별적 제도와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조성된 성평등 기금과 일반 모금들로 운영됩니다.

☆는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총 11개 단체	성평등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68,000,000원
130,482,430원	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사업	23,000,000원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지원사업	24,000,000원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5,482,430원
	수시지원사업	10,000,000원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사업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13,000,000원 2025 FDSC 예비-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멘토링
	☆한국여성노동자회 20,000,000원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노동자의 대응
	한국여성단체연합 18,000,000원 베이징 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프로젝트 <잇:다 From 1995 to 2025>
	줌마네 15,000,000원 청년여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집' 쓰기 워크숍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울림 17,000,000원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과 기록
자유주제	

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사업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8,000,000원 포항 대흥동 허(Her) 스토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15,000,000원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 기초조사
지정주제	
성평등한 돌봄사회 조성 지원사업	서울YWCA 12,000,000원 돌봄 노동에 잠식 당한 나의 인생 구하기 <모두 돌봄 ON溫 프로젝트>
	☆ 여성환경연대 12,000,000원 완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지정주제	
여성운동 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여성감독네트워크 5,482,430원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차세대여성운동 지원	
수시 지원사업	한국여성민우회 5,000,000원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차별과 혐오 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한국YWCA연합회 5,000,000원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과 기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WHY

“반도체·전자산업 현장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아픈 줄 모르고 일해야 했을까요?”

반도체·전자산업 현장에서 일해 온 여성들은 오랫동안 유해물질과 위험한 노동환경 속에서 일해왔습니다. 어떤 이는 병을 얻었고, 어떤 이는 아이의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들은 산재신청서 몇 줄, 짧은 기사 한 문장으로만 남겨졌습니다. 왜 여성 노동자들의 아픔은 기록되지 못했을까요? 왜 누군가의 삶은 숫자와 기사 몇 줄로 사라져야 했을까요? 그래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WHAT WE DID

우리는 보이지 않던 반도체·전자산업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 # 실참여인원: 총 150명
- # PROJECT: <반도체, 전자산업 여성 노동자 건강권 확보를 위한 활동과 기록>
- ① 월별(4월~9월) 오픈세미나 5회 개최(100여 명 참여)
- ② 여성노동자건강권 관련 온라인(조회수 1,400회), 오프라인 1회 캠페인 진행
- ③ 여성노동자건강권 리플렛 한글/영문 버전 각 2,000부 제작 후 배부
- ④ 15명의 직업병 피해자의 삶을 담은 <회로를 이탈하다> 기록집 제작

HOW WE CONNECTED

기록자들은 전국 곳곳을 찾아가 노동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어떤 병에 걸렸는가”를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무엇을 사랑했는지, 어떤 두려움과 희망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 과정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누군가의 삶이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를 만들던 내가 난데없이 기록작업에 뛰어들 건, 없어지는 안 되는 이야기를 카메라 대신 글로써 붙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년간 이어진 기록작업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말하는 이의 삶과 만나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듣는 이의 세계도 달라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록자A

“손에 손잡고 반올림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담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기록자B

“병을 늦게 알아차려 몸은 힘들지만, 나처럼 발병하는 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록자C

CHANGE

기사 몇 줄 속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공”으로 기록하였고, 노동 문제를 젠더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 여성 노동자의 건강권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론화
- 직업병 여성 피해자 심층 인터뷰 통한 기록화
- 여성 노동 환경 문제를 젠더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작점
- 국제 포럼과 연대 활동을 통해 국내외 사회 인식 개선의 계기 마련

반올림과 함께하는 방법

반올림 뉴스레터 구독

반올림 후원회원 가입

반올림 홈페이지

Instagram Facebook X @harpeglory

무색우취(2025)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보충받지, 우리를 보호하던 장갑이었던 장갑을, 장갑 기증으로, 착수 수습, 노동환경 수습까지 모든 영역을 살려주세요!”

섬색목수(2025)

“기회를 남기 모두가 같은 살았지만, 아무런 통로도 통로가 없었던 동시에 편견과 이해는 한데, 이런 편견에 신장염의 문제가 야기됩니다.”

문제점을 주제로 만드는 사람들

여성노동자들은 자신만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만들어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곧 모두가 만나볼 수 있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반도체 여성노동자에게 GENDER EQUALITY 건강과 인권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이 여성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4월 28일(월) 13:00~14:0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호 대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 B1C 하이시티 2층 211호 대회의실)

주최: 반올림, 후원: 삼성전자의용재단,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조합

문의: 반올림 팀 (010-8310-8982)

<작업장의 페미니즘> 북토크

4월 28일 산재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북토크 신청 QR

북토크 신청 QR

2025 FDSC 예비-사회초년생 디자이너멘토링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

WHY

“왜 여성 디자이너들은 ‘버티는 법’부터 배우야 했을까요?”

그래픽 디자인 업계는 여성 비율이 높은 분야이지만, 관리직과 리더십 영역으로 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현장에서 여전히 성차별과 불합리한 검열, 불안정한 노동 환경, 과도한 경쟁과 번아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들은 창작의 즐거움보다 계속 버틸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특히 사회초년생과 예비 디자이너들은 업계 정보를 롤모델과 연결될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소셜클럽(FDSC)은 이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WHAT WE DID

여성 디자이너를 위한 배우고 연결될 수 있는 멘토링, 커뮤니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참여인원: 총 339명

PROJECT: <2025 FDSC - 예비 사회초년생 디자이너 멘토링>

- ① 페미니스트 디자이너 커뮤니티 ‘밝은미래소셜클럽’ 운영(184명 온라인 참여)
- ② 밝은미래연구소 플러스 프로그램 3종 운영
 - 네트워킹라운지(참여자 146명, 멘토 12명) 개최
 - 멘토링(멘티 20명, 멘토 8명) 매칭
 - 대규모 네트워킹(146명), 소규모 토크(66명), 밀착 멘토링(20명) 진행

HOW WE CONNECTED

멘토와 멘티들은 단순히 취업 정보 공유를 넘어 자신의 실패와 불안, 고민을 솔직하게 나누며 서로 연결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일을 시작하려는 디자이너들은 진로 멘토링과 포트폴리오 리뷰를 통해 실무 역량과 전문성을 높였고, 디자인·AI·정치·지역 이슈를 연결한 토크와 참여형 워크숍을 통해 디자인을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된 문제의식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오래, 나답게 일할 수 있을까”를 함께 고민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나이와 경제 상황 때문에 위축되어 있었는데, 다시 디자인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멘티 참여자A

“누가 더 잘났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티 참여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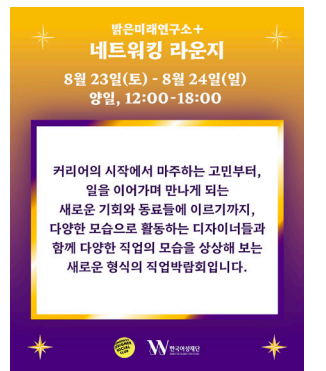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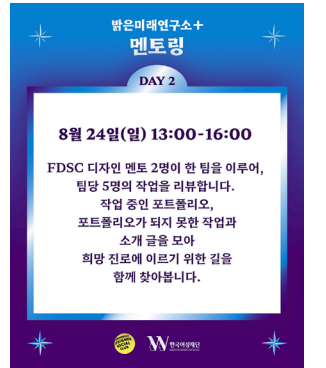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멘티 참여자C

“자신의 작업에 만족하지 못하고 포트폴리오를 오래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었는데, 멘토로서 사실 저도 같은 시간을 지나왔고,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생각을 멈추고 뭐라도 해보자는 말이 나오더라구요. 멘토와 멘티 모두 함께 행사를 만들어가는 기분이라 즐겁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멘티 참여자D

CHANGE

여성 디자이너들을 위한 지속가능한 커리어 네트워크를 확장하였습니다.

- 멘토링, 워크숍 통한 디자인 분야 경력단계별 직무역량 개발 및 전문성 함양
- 성평등 관점의 교육 가이드라인 기반의 사회이슈 접근 및 연대 시스템 기반 마련
- 페미니즘 관점의 창작과 노동문화를 확산하고, 연결과 연대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생태계 구축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노동자의 대응

한국여성노동자회

WHY

“여성 노동자 차별과 폭력 문제는 반복되는데 사회는 이를 구조적 문제로 보지 않을까요?”

직장 내 성희롱, 임금차별, 괴롭힘, 해고 등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일터에서 차별과 폭력을 경험해도 “원래 그런 것”처럼 견뎌야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는 경력 단절의 이유가 되었고, 문제를 제기하면 “예민하다”, “조용히 넘어가라”는 말을 듣기 일쑤였습니다.

어떤 여성은 4년 동안 직장 내 스토킹과 괴롭힘 속 불안과 공포를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노동자회는 이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WHAT WE DID

지난 30년간 여성 노동자들이 겪어온 차별과 투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실참여인원: 총 10,000명

PROJECT: 평등의전화 30년의 역사, 구조적 성차별과 여성 노동자의 대응

① 76,925건의 데이터 기반 30년간(1995~2024년)

여성노동 상담 내용과 시대별 이슈 변화 분석

② 온·오프라인 워크숍 운영(6회)

③ 토론회 1회 개최(53명 참여),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379회)

④ 토론회 자료집 발간(전국 11개 지역 상담 데이터와 주요 사례 분석)

HOW WE CONNECTED

7만 건이 넘는 상담 기록은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구조의 문제를 보여주는 목소리였습니다. IMF 이후 반복된 해고와 저임금, 출산·육아 차별, 미투 이후 폭증한 성희롱 상담까지 각 시대마다 여성 노동자들은 다른 형태의 차별과 싸워왔습니다. 상담을 통해 여성 노동자들이 작은 용기와 목소리는 서로 연결되며, 법과 제도를 바꾸는 운동으로 이어져왔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일을 겪으며 여전히 언제 보복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지만, 저는 아직 살아있고, 저를 도와주는 여러 단체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당연한 일이 행운이 아닌 일상이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으며 공권력이 지켜주지 못한 권리에 대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이런 조력을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담자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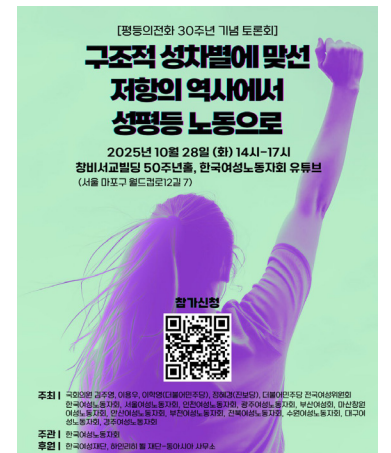
“평등의전화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다시 삶을 지켜낼 수 있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상담은 단순한 피해 접수가 아니라 구조적 차별을 드러냈고, 여성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의 카나리아* 같았습니다.” 상담자B

*카나리아 의미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 발생 시 사람보다 먼저 작은 카나리아가 위험 신호를 먼저 알렸듯 여성 노동자들이 위험과 차별을 가장 먼저 경험함을 비유함

CHANGE

여성 노동자들의 작은 용기와 목소리는 연결되며, 상담이 결국 사회 변화를 만들어왔습니다.

- 30년간 평등의전화 상담 통한 여성 노동자의 성차별적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싸운 여성노동자의 역사 기록 및 복원
- 구조적 성차별 문제 공론화 통한 관련 법 개정, 정책 추진 등 실제 제도 변화의 기반 마련
- 향후 성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위한 여성 노동 상담이 나아가야 할 과제 설정 및 의제 발굴 계기 마련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프로젝트 <잇:다 From 1995 to 2025>

한국여성단체연합

WHY

“1995년 베이징행동강령 선언 이후,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1995년 베이징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회의에서 189개 정부가 베이징 행동강령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여성폭력, 노동, 돌봄, 정치 참여, 빈곤 등 여성 삶 전반의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약속이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더 많은 여성들이 사회와 정치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동시에 혐오와 차별, 반페미니즘 정치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우리 사회의 성평등 현실을 다시 기록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E DID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을 맞아 <잇:다 From 1995 to 2025>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실참여인원: 386명

PROJECT: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한국여성운동 역사 잇기 프로젝트
<잇:다 From 1995 to 2025>

- ① 시민사회보고서 집필(총 11개 단체 참여) 및 국문본 2종, 영문본 1종 발행
- ② 간담회 진행(총 2회)
- ③ 토론회 1회 개최(총 86명 참여), 유튜브 생중계(조회수 379회)
 - [토론회] 변화를 위한 도전, 미래를 향한 여정 - 베이징행동강령 30주년 기념 이행 평가 및 향후 과제 개최(9/23)
- ④ 시민사회보고서 국문본 2종 온라인 1회, 오프라인 총 70부 배포, 영문본 1종 온라인 1회, 국외 APWLD(아시아태평양 여성, 법, 개발 포럼)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페미니스트 활동가들 대상 배포



HOW WE CONNECTED

이번 프로젝트에 여성과 폭력, 장애, 이주, 노동 등 다양한 의제를 다루는 여성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시민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은 서로 다른 현실과 경험을 연결하며 “지금 여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함께 고민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2025년 한국 여성 인권 주소를 살피고, 앞으로 필요한 변화를 함께 모색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서로의 현실과 관점을 연결하는 일이었습니다. 각자의 경험과 고민, 현장의 목소리가 모여 하나의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참여자A

“여러 단체와 함께 시민사회보고서 제작을 목표로 논의와 합의를 이어가는 과정 동안 우리 사회의 여성 인권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대의 의미를 실감했습니다.” 상담자B

CHANGE

2025년 한국 사회 여성 인권의 현실과 향후 필요한 성평등 과제를 공론화하였습니다.

- 지난 30년 한국 사회의 여성 인권 변화를 체계적 정리 및 사회적 진단
- 특히 장애 여성이 겪는 폭력, 이주 여성이 겪는 차별 등 한국 사회 전반의 젠더 폭력 문제를 제시
-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는 지금, 국경을 넘어 연결되는 페미니스트 연대의 중요성 확인
- 시민사회보고서를 통해 한국 여성 인권 현황 공유 및 향후 필요한 정책 및 과제를 제안



포항 대흥동 허(Her) 스토리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

WHY

“왜 어떤 여성들의 삶은 오랫동안 말해질 수 없었을까요?”

포항 대흥동 성매매 집결지, 그곳에는 오랫동안 수많은 여성의 삶과 시간이 존재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회는 그 여성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낙인 속에 가두었고, 누군가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지웠습니다.

그래서 경북여성현장상담센터 새날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질 뻔한 여성들의 삶을 누가 기록할 것인가? 왜 여성들은 그 공간으로 내몰렸을까, 왜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을까?”

WHAT WE DID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실참여인원: 총 12명

PROJECT: 포항 대흥동 허(Her)스토리

- ① 인터뷰이(15명) 모집 및 심층인터뷰 진행
- ② 기록집 제작(12인 인터뷰 내용 수록) 및 170부 인쇄
- ③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유관기관 등 100곳에 배포
- ④ 출간기념회 1회 진행(73명 참여)

HOW WE CONNECTED

기록자들은 성매매 경험 여성뿐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인들을 직접 만나 오랫동안 말해지지 못했던 포항 대흥동의 역사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터뷰 과정에서 그녀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며, 수십 년 동안 꺼내지 못했던 기억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도 될까, 누가 믿어줄까”라며 조심스럽게 시작된 이야기들은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존엄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민들과 인근 상인들 역시 오랫동안 외면해 온 지역의 현실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통해 낙인과 침묵 속에 있던 여성들의 삶을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시간으로 대흥동의 지역의 미래와 개인의 삶의 희망을 꿈꾸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내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해본 건 처음이었어요. 용기 없어서 못 벗어난다면, 용기 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인터뷰이A

“과거에는 성매매에 대해 금지하고 불법이고, 이런 인식이 없는 때라 성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시대였지” 인터뷰이B

“(성매매)일을 그만 둘 때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에게 용기 없이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고, 다른 생활을 시작하면서 또한 용기 없이는 도전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인터뷰이C

“25번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21세기 대한민국 성매매 현장의 여성들과 인근 주민들을 통해 대흥동 집결지 공간의 변화와 희망의 길을 모색하는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회에서 철저히 외면받고 지워져 버렸던 이곳에도 꿈과 희망이 존재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업담당자D

CHANGE

성매매 여성 인권에 대해 새로운 공론장을 펼쳤습니다.

- 성매매 집결지 여성들의 삶과 지역의 역사를 사회적 기록으로 남겨 사회적 공감 확산
- 성매매 문제를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여성 인권 문제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 여성들의 목소리와 지역 주민들의 기억을 연결하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성평등 문제로 다가감
-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 회복 필요성과 자활지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공론화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 기초조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WHY

“국경 밖 여성들의 삶은 쉽게 소비되고 지워져야 했을까요?”

2024년 베트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온라인 성·인종착취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여성들의 사진과 개인정보가 공유되고, 성적 대상화와 혐오, 조롱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온라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퍼진 정보들은 현지 여성들의 노동과 이동, 안전과 생계까지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주여성센터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E DID

우리는 국경 밖 보이지 않던 폭력의 구조를 추적했습니다.

- # 실참여인원: 3,589명
- # PROJECT: <국경을 넘는 온라인 성·인종착취 강간문화 대응을 위한 현지 기초조사>
- ① 조사팀(11명) 및 자문단(2명) 구성
- ② 국내 세미나 진행(4회) 및 평가회의 진행(1회)
- ③ 현지 기초조사(현지 유관기관 5곳 방문), 전문가 간담회, 현지 인터뷰(10명) 진행
- ④ 실태조사 보고회 1회(150명 참여), 참여형 캠페인 1회 진행(500명 참여)
- ⑤ 베트남 여성 대상 온라인 성·인종착취 문제 관련 소식지 1회 발행 및 2,884명 노출 등



HOW WE CONNECTED

활동가들은 직접 베트남 현지를 방문해 피해 여성들과 지원기관, 현지 활동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 혐오와 성착취가 현실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업소 후기, 여성 외모 평가, 가격 정보, 이동 경로 공유 같은 게시물들은 단순한 인터넷 문화가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안전과 노동환경을 위협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현지 여성들은 폭력과 착취, 원치 않는 임신과 사회적 낙인 속에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베트남의 활동가·여성단체·시민들을 연결하며 국경을 넘는 여성인권 연대의 가능성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디지털 플랫폼-기업 문화-교민 네트워크-관광 산업을 매개로 존재합니다. 그 예로 한국 기업 주재원이 늘면 업소도 늘고, 온라인 정보 공유도 함께 증가합니다.” 현지 인터뷰이A

“국경은 달라도 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구조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현지 여성단체 담당자B

“온라인에서 소비되던 ‘코스·초이스·후기’가 베트남 현지의 골목과 여성들의 이동 패턴까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박제방으로 드러난 디지털 성·인종착취가 실제 도시 구조와 산업, 여성들의 노동·위험을 지배하는 매뉴얼이라는 사실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사업담당자C

CHANGE

국경을 넘어 젠더폭력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 베트남 여성 대상 온라인 성·인종착취 관련 국경을 넘는 젠더폭력 문제에 대한 공론장 형성
- 디지털 성폭력과 인종 차별이 여성들의 현실 삶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로 인식 개선
- 한국과 베트남의 여성단체, 활동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시아 여성 인권을 위한 국제 연대 기반 마련



지정주제(돌봄) 01

돌봄노동에 잠식 당한 나의 인생 구하기 <모두 돌봄ON(溫)프로젝트>

서울YWCA

WHY

“돌봄은 늘 한 사람의 몫이 되어야 했을까요?”

아이가 아프면 회사를 쉬는 사람, 집안일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가족 모두의 일정을 챙기는 사람, 한국 사회에서 돌봄은 오랫동안 ‘엄마니까’, ‘아내니까’라는 이름 아래 여성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과 경제적 불안, 끝없는 피로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 유지되어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기 위해 모두가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삶의 일입니다. 그래서 서울YWCA는 질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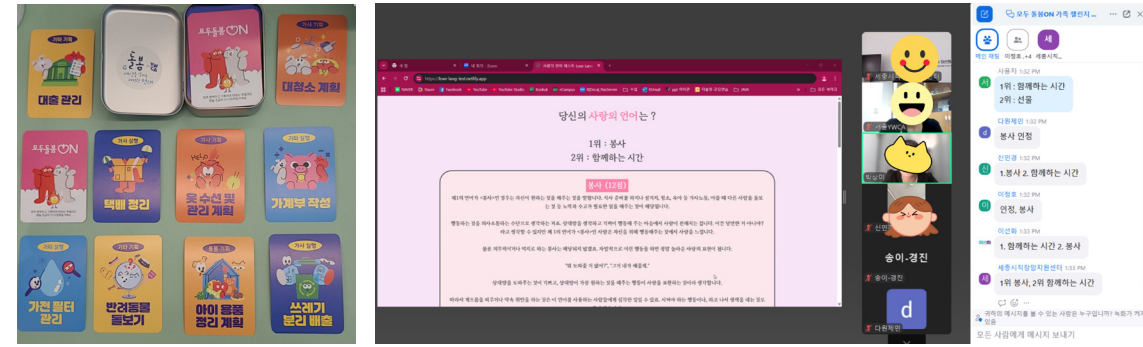
WHAT WE DID

우리는 “함께 돌보는 가족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 # 실참여인원: 355명
- # PROJECT: 돌봄 노동에 잠식당한 나의 인생 구하기 <모두 돌봄ON(溫)프로젝트>
- ① 모두 돌봄ON 실천 키트 개발 및 100개 세트 제작, 배포
- ② 공정한 돌봄을 실천하는 부부 챌린지 운영(21명 참여)
- ③ 14일간 부부챌린지 진행(62명 참여)
- ④ 모두 돌봄ON 온라인 캠페인 진행 캠페인 진행(4회, 179명)

HOW WE CONNECTED

참여자들은 처음으로 돌봄과 가사를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빨래를 개었고, 누군가는 배우자의 하루를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서로의 노동과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돌봄을 함께 나누는 경험 속에서 관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돌봄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단순한 역할 분담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잘하는 사람이 빨리 해버리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구나 처음은 서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참여자A

“엄마가 되고 식모가 된 것 같아 억울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가족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자B

“돌봄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느꼈고, 혼자만 힘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습니다.” 참여자C

“모두 돌봄ON 프로젝트는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첫 계단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 돌봄의 영역을 함께 분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서로의 힘들을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는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사업담당자D

CHANGE

가족 모두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통해 성평등한 돌봄 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하였습니다.

- 돌봄을 여성의 몫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가족이 함께 돌봄 주체가 되는 문화 확산
- 참여자들은 가사와 돌봄 노동을 새롭게 이해하여 돌봄의 주체가 되는 경험 통해 가족관계 개선
- 성평등 돌봄 문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하고, 사회적 공론의 장 확산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여성환경연대



WHY

“여성들은 환경기 몸의 변화를 부끄럽게 여기며 혼자 견뎌야 했을까요?”

열감과 불면, 감정의 변화, 예기치 않은 통증과 피로, 많은 여성들이 환경을 경험하지만 그 이야기는 사회에서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말을 들었고, 누군가는 자신의 몸 변화를 숨겨야 했습니다. 환경은 여성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임에도 사회는 오랫동안 개인의 문제로 남겨두었습니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환경기 여성은 거의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환경연대는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WHAT WE DID

여성들이 환경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공론장을 펼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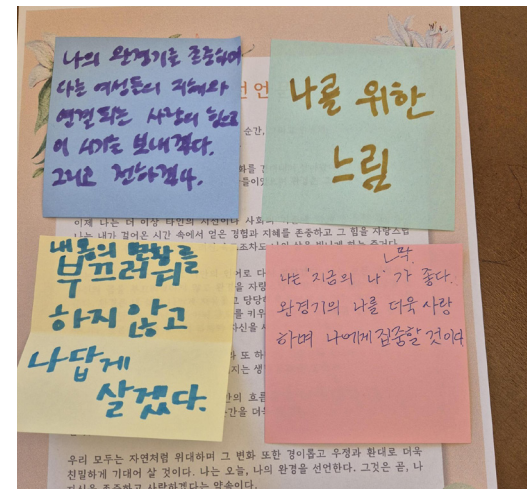
실참여인원: 1,638명

PROJECT: 환경기 돌봄을 위한 공론장

- ① 다, 다른 환경 인터뷰 4회, 자문회의 2회, 언론기고 2회
- ② 환경 교육 2회(참여자 60명)
 - “환경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참여자 30명)
 - 환경축하행사 “환경, 나이들과 만나는 시간” 1회 개최(참여자 30명)
- ③ 환경기 경험 및 돌봄 필요성 설문조사 1회 (응답자 1,534명), 카드뉴스 3편 제작, 자문회의 1회
- ④ 환경기 돌봄 토론회 1회(참여자 44명), 자료집 1종 온라인 배포(조회수 66회)

HOW WE CONNECTED

여성들은 처음으로 자신의 몸 변화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에 대한 사회적 침묵을 깨고, 여성들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숨겨야 하는 변화가 아니라 함께 서로를 이해하고, 돌봐야 하는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환경파티를 통해 만난 참여자들은 세대 간 또는 또래 간 정서적 지지자 역할을 하였습니다. 참여자 중 한 분은 이 경험을 지역의 자신의 공동체에서 또 다른 새로운 환경모임을 개최하여 돌봄 네트워크를 확산하였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나이의 여성이 모인 것이 무척 의미 있었습니다. 서로 환경 여성의 다양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A

“환경된 나를 스스로 축하하기 위해 참여했는데,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경험이었습니다. 여러 참여자분들이 환경의 장점을 공유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참여자B

“환경파티가 궁금하다며 부산에서 아침 일찍 서울까지 올라오신 참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신 그 마음만으로도 이 사업의 의미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곳이 필요했다고 말하시는 분과 지역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참여 소감을 말씀주셨습니다.” 사업담당자C

CHANGE

환경을 나만의 부끄러운 일이 아닌 함께 돌봐야 할 삶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돌봄의 언어를 만들었습니다.

- 여성의 몸 변화를 존중하고 환경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회 인식 개선
- 환경을 축하할 수 있는 돌봄과 연결 중심의 새로운 커뮤니티 구축
- 환경기 이후 중년 여성을 평가절하하는 편견과 조롱에 대한 사회적 돌봄 이슈로의 전환 마련

기획공모(차세대) 01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여성감독네트워크(WDN)



WHY

“새로운 기술 시대에 디지털 젠더 폭력을 여성의 시선으로 담아내는 영화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시와 딥페이크 기술은 미디어와 영화 산업의 미래로 이야기되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얼굴을 합성하고, 여성을 조롱과 성적 대상으로 소비하여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사회를 뒤흔든 딥페이크 성범죄는 특히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깊은 불안과 공포를 남겼습니다. 디지털 성폭력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와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시선으로 이 현실을 이야기하는 콘텐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성감독네트워크(WDN)는 질문했습니다.

WHAT WE DID

디지털 성폭력과 온라인 여성혐오 문제를 다루는 여성주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실참여인원: 총 1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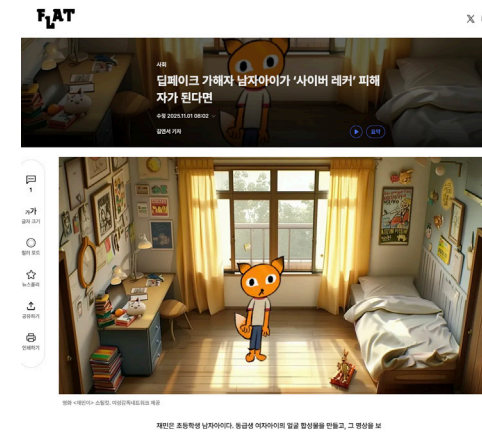
PROJECT: 디지털 성폭력에 대응하는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영상 제작 프로젝트

- ① 디지털 시대의 페미니즘 미디어의 가능성 특강 2회 개최 (온·오프라인 참여자 100명)
- ② 여성혐오적 온라인 문화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영상 제작 협업 프로젝트를 통해 영화 1편 제작
- ③ 제작 후 <재민이>* 상영회를 통해 관객(온라인, 오프라인 관객수 200명)과 만남

* 영화 <재민이>는 동급생의 딥페이크 영상을 만드는 범죄 가해자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 시대의 피해자가 되고 마는 이야기를 다루는 애니메이션 단편영화임

HOW WE CONNECTED

여성 감독들은 여성주의 시선의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 연결되었습니다. 차세대 여성 감독들은 단순히 영화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과 폭력, 젠더 문제를 함께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기술과 여성 혐오가 결합했을 때 디지털 성폭력 구조, 법률과 온라인 문화 문제를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는 여성주의 영상 제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배우고, 토론하며 기술과 젠더폭력 문제를 여성주의 관점으로 재해석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는 동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연대를 경험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영화관에 관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관객들이 보고 싶은 영화가 없을 뿐이라는 기고 글을 보고, 한국에서 여성 감독으로서 딥페이크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재민이> 상영회에 많은 관객과 만나 소통하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된다는 걸 느꼈고, 앞으로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로 영상을 제작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성감독A

“여성 감독들이 이번 기회에 서로를 지지하며 작업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성감독B

“각자의 삶을 안고 극장에 온 관객들과 만나게 하는 일, 그것이 작품의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치열한 작업과정에 아낌 없는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관객C

CHANGE

여성주의 관점의 새로운 영화 창작의 세계관을 열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문제를 여성주의 시선으로 공론화
- 차세대 여성 감독들의 창작 네트워크 구축 및 창작 세계관 확장
- 딥페이크와 온라인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성평등 담론 확산

수시지원사업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한국여성민우회

연대단체명: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 전화

WHY

“여성들은 민주주의를 지켜냈지만, 정치에서 다시 주변부로 밀려나야 했을까요?”

2025년 조기 대선 정국, 탄핵 광장에 수많은 여성 시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선이 시작되자 정치권은 다시 여성과 성평등 의제를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성평등이라는 단어의 언급을 피했고, 여성 폭력과 여성 노동, 돌봄과 차별 문제는 공약과 토론에서 밀려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여성민우회는 질문했습니다.

WHAT WE DID

우리는 성평등 정치를 요구하는 광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실참여인원: 총 1,000명

PROJECT:

〈윤석열 파면한 페미니스트 대행진: 차별과 혐오선동 정치에서 성평등 정치로!〉

- ① 조직위원회 구성(여성단체, 환경단체, 노동조합 등 138개의 다양한 단체 참여)
- ② 페미니스트 시민 조직(1,000명 참여) 및 집회 1회 개최
- ③ 사후 평가회의 1회 진행(집회기획팀 5개 단체 참여)

HOW WE CONNECTED

우리는 성평등 정치를 요구하는 광장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와 연대단체들은 성평등 사회를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선 한복판에 드러냈습니다. 2025년 5월 10일 1,000명의 시민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광화문까지 6km 가까운 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걸으며 젠더 폭력 해결, 성평등 노동 환경, 여성 대표성 확대, 차별 금지, 혐오 정치 반대를 외쳤습니다. 성평등 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평등을 포기할 수 없다는 차별과 혐오에 맞선 연대의 마음으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행진 도중 진행된 ‘검은 장막’ 밝기는 행진트럭 사회자가 검은 현수막에 적힌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단어를 읽었고, 그 현수막을 밟으며 차별과 폭력 없는 세상을 외치는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광장에서 서로를 보며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참여자A

“가정폭력처벌법”, “비동의강간죄”,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 피해, 심지어 가장 안전해야 할 집에서 혹은 가장 믿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죽임을 당하는 참혹한 페미사이드 현실을 규탄하였습니다. 비를 맞으면서도 끝까지 걷고 싶었습니다.” 참여자B

“4개월 동안 탄핵을 외치느라 지친 페미니스트 시민을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며 퍼포먼스로 채워진 행진을 기획했습니다. 곳은 날씨에도 거리를 채운 참여자들과 행진하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성평등이 지워진 대선에 문제제기를 하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연대는 늘 어렵지만 활동가로 쑥쑥 성장할 수 있는 기획이기도 했습니다.” 사업담당자

CHANGE

**혐오 정치 속에서 여성 시민의 목소리가
성평등 민주주의를 앞당겼습니다.**

- 성평등 의제를 다시 정치의 중심으로 끌어옴
- 혐오와 차별의 정치에 맞서는 시민 연대 및 페미니스트 광장 확장
- 집회를 통해 성평등 민주주의 주체로서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사회 인식 개선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

한국YWCA연합회

연대단체명: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여성신문, 한국여성단체연합

WHY

“정치는 왜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응답하지 않을까요?”

2025년 조기 대선 정국, 정치권은 경제와 안보를 얘기했지만, 정작 여성의 삶과 성평등 의제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는 정치권과 언론에서 철저히 주변화되었습니다. 정치와 언론 모두 외면했지만, 여성 유권자들은 분명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YWCA연합회는 질문했습니다.

WHAT WE DID

우리는 여성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 # 실참여인원: 총 2,000명
- # PROJECT: <여성 유권자, 21대 대선을 말한다> 정책 토론회
- ① 2030 여성 유권자 대상 설문조사(응답자 1,000명)
- ② 정책 토론회1회 개최(80명 참여)
- ③ 영상 콘텐츠 제작(전체 영상 1편, 쇼츠 영상 6편)및 온라인 배포(조회수 2,500회)
- ④ 여성단체, 언론, 정당 간 네트워크 형성

HOW WE CONNECTED

2030 여성 유권자 1,000명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전국 2030 여성 유권자 1,000명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여성 유권자들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성평등 정책 복원, 돌봄과 노동 문제 해결, 여성 대표성 확대 등을 중요한 사회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는 2030 여성 유권자 리포트로 정리되어 정책토론회의 핵심 자료가 되었습니다. 5월 12일 개최된 정책 토론회에서 여성 유권자, 활동가, 연구원, 언론인, 정당 정책 관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 80명이 참여하였고, 그 자리에서 정치와 여성 유권자 사이에 끊어졌던 연결을 데이터와 이야기로 다시 사회 한 가운데로 연결했습니다.



VOICES

변화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

“이번 사업은 “설문조사, 토론회, 기사화,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여성 유권자의 존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가시화하였습니다. 정치에 침묵하지 않는 여성들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연결고리를 통해 백래시가 일상화된 지금, 새로운 정치적 움직임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업담당자A

“제 스스로 이번 사업을 기획하며, 왜 정치에서 여성은 나중이어야 하나를 질문했었습니다. 실제로 토론회 날, 한 정당 관계자가 “2030 여성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직접 들은 건 처음”이라고 말할 때, 그 말이 사업 전체를 요약하는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업이 정치는 여성 유권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작은 시작이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여성 유권자가 자신의 언어와 경험으로 정치에 말 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담당자B

“정치가 내 삶과 멀게 느껴졌는데,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C

“우리가 단지 투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치의 주체라고 느꼈습니다.”

참여자D

CHANGE

여성의 목소리가 정치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힘으로 확장되었습니다.

- 여성 유권자의 정치적 목소리를 데이터와 콘텐츠를 통해 사회적으로 가시화 함
- 성평등 의제가 사회적 공론장과 정치의 중심으로 확장하는 계기 마련
- 토론회를 통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대화 창구 마련

기부자 명단

2025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은 2024년 성평등기금캠페인과 다양한 모금으로 후원해주신 기부자님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한국여성재단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916명의 개인 기부자님과 16개의 기업 및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성평등기금 캠페인도 6월에 진행 예정이니 지금처럼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개인 기부자

Alexis	강은결	구숙경	김광하	김미순	김성규	김애정	김윤경
-Bourreille	강은나	권경아	김귀옥	김미애	김성근	김양숙	김윤별
Elena	강은비	권명희	김규리	김미애	김성례	김양지영	김윤수
-Gruzina	강은숙	권미	김금례	김미영	김성원	김양희	김윤정
KURI-	강재진	권민지	김나리	김미자	김성은	김엘리	김윤주
HARA-	강종남	권수연	김나연	김미주	김성준	김연미	김윤주
ATSUSHI	강태인	권은숙	김나영	김미향	김세연	김연정	김윤희
nursyamim	강한장	권은희	김난이	김민경	김세은	김연희	김윤희
(누루사맘)	강혜규	권정순	김남희	김민문정	김세은	김영경	김윤희
Olivia Ro-	강혜금	권진희	김다예	김민엽	김솔희	김영선	김은경
drigo	강혜란	권태섭	김다은	김민정	김수민	김영재	김은경
TA NA-	고경진	권태영	김덕선	김민주	김수민	김영주	김은미
THAN T	고명화	권해림	김도수	김민주	김수빈	김영주	김은미
tory	고명희	권혁주	김도영	김민지	김수연	김영지	김은송
강덕순	고수민	권현지	김도협	김벤자민	김수영	김영철	김은순
강도성	고영주	금진주	김도형	김병수	김수정	김예슬	김은실
강범희	故장이정수	김가연	김동식	김보민	김수진	김오목	김은정
강병원	고재순	김경란	김동희	김보민	김수현	김용	김은정
강보길	고지애	김경심	김둘순	김복자	김수현	김용강	김은진
강상모	고지원	김경임	김득현	김봉연	김순근	김용덕	김의향
강서연	고채우	김경혜	김명동	김봉일	김순열	김운주	김인선
강승희	공보경	김경희	김명미	김상욱	김시은	김유경	김인숙
강영아	공태숙	김경희	김명선	김상희	김신호정	김유리	김인영
강원두	곽숙희	김경희	김명일	김서연	김아라	김유미	김인춘
강원화	곽지혜	김경희	김명진	김선미	김안나	김유미	김자인
강윤서	곽혜경	김고은	김미경	김선옥	김애령	김유진	김자현

개인 기부자

김잔디	김태석	김희정	문영호	박선의	박혜숙	서정화	송호진
김장미	김태욱	김희진	문재웅	박세경	박혜숙	서조아	신경아
김재구	김태훈	나성주	문재호	박소진	박혜연	서지연	신동석
김재연	김평집	나윤경	문정곤	박수경	박혜정	서지희	신민자
김재준	김하경	나인영	문희영	박수정	박효숙	서현우	신봉균
김재현	김하영	나진희	민영선	박수진	방소현	서혜령	신상철
김정란	김한성	나혜림	민은정	박숙희	방윤혁	서혜정	신소영
김정민	김향미	남기용	민현주	박승진	배기욱	서희경	신영미
김정은	김현미	남동원	박가람	박애순	배선희	서희숙	신유선
김정임	김현빈	남영이	박가현	박영란	배성신	서희주	신은섭
김정현	김현숙	남영주	박건혜	박영혜	배은주	석영미	신인령
김정화	김현식	남인순	박경림	박용호	배종학	석지은	신종은
김정희	김현아	노정아	박경희	박은실	배철용	선은주	신주진
김종순	김현주	노지은	박규리	박은위	배현지	설이숙	신지열
김주희	김형기	노태운	박규태	박은정	백경흔	성기확	신창재
김준수	김혜경	노혜진	박근영	박이레	백선숙	성예량	신현옥
김지나	김혜미	도남래	박금주	박익수	백선자	성예현	신호성
김지선	김혜숙	도인정	박기남	박정곤	백소영	성정현	심누리
김지애	김혜연	동고은	박기순	박정례	백숙희	손순연	심에스더
김지영	김혜영	류복연	박나리	박정아	백승리	손지형	심영희
김지원	김혜영	류영선	박득숙	박정효	백연아	송기욱	심재형
김지현	김혜전	류유선	박명수	박종대	백영경	송다영	심형은
김지현	김혜진	마경희	박명숙	박주연	백지수	송명순	안건희
김지혜	김혜진	마소현	박명자	박지연	변성윤	송상희	안경모
김진근	김혜진	마정윤	박미나	박지효	복금희	송승원	안김정애
김진수	김홍열	맹지열	박미연	박진영	빈희진	송영호	안미영
김진숙	김홍우	맹필수	박미영	박찬민	서동진	송은우	안민석
김진아	김희성	맹혜정	박민식	박찬범	서민정	송점심	안선영
김진옥	김효선	문경란	박민정	박찬주	서옥경	송정미	안수란
김진태	김효정	문경환	박민혁	박재원	서우찬	송정민	안수완
김진희	김효진	문경희	박사용	박총순	서윤아	송준용	안순화
김진희	김희경	문시윤	박상규	박현미	서은미	송지은	안영진
김창근	김희윤	문시윤(문	박상헌	박현순	서은미	송찬양	안인영
김창연	김희정	의성)	박상희	박혜선	서정민	송혜영	안재웅

개인 기부자

안필락	유나연	음종성	이미경	이수현	이임조	이호영	장우주
안현희	유보람	이가영	이미경	이숙인	이임주	이홍복	장운선
양근혜	유보람	이강수	이미경	이숙진	이재근	이효숙	장주연
양민석	유소빈	이건정	이미란	이숙향	이재윤	이효진	장지은
양서연	유승완	이경순	이미숙	이슬기	이재인	이희원	장태진
양유성	유영선	이경아	이미영	이승현	이재현	인재근	장필화
양진호	유재경	이경준	이미희	이안소영	이정원	임경민	장한나
양현식	유정원	이경진	이박혜경	이양주	이정원	임경숙	전대근
양현정	유지은	이경희	이병주	이연지	이정자	임경훈	전부숙
엄미영	유해미	이계경	이보현	이영미	이정현	임규태	전양숙
엄선예	유현정	이광희	이봉찬	이영희	이종숙	임도경	전영미
엄태호	유혜강	이국화	이상덕	이예승	이종윤	임성원	전예진
여진경	유혜윤	이귀우	이상미	이예원	이지수	임순영	전우용
여호영	유화열	이규선	이상민	이예원	이지영	임영주	전윤미
오가영	유환구	이그림	이상엽	이예지	이지훈	임영화	전은서
오경숙	유효상	이근정	이상운	이완정	이진경	임우경	전혜림
오경인	육성희	이근주	이상은	이용갑	이진희	임은주	정강자
오동석	윤계원	이금순	이상익	이용선	이찬영	임재민	정겨울
오미향	윤만호	이금임	이상태	이용성	이창균	임채홍	정경희
오서연	윤미연	이길연	이상현	이용일	이채원	임효선	정길심
오성욱	윤선정	이나영	이상화	이우진	이채원	임희은	정다정
오세홍	윤성희	이남순	이선미	이유민	이채이	장근영	정동황
오신영	윤승재	이다경	이선민	이유진	이충원	장미연	정미경
오영미	윤연숙	이다인	이선주	이유현	이파라	장성자	정미영
오정순	윤옥경	이도이	이성원	이윤재옥	이한들	장소연	정미자
오정용	윤자영	이도형	이성은	이윤지	이현경	장소연	정민성
오창현	윤정희	이동선	이소영	이은자	이현숙	장소현	정선경
오현석	윤종철	이동신	이소희	이은정	이현재	장수영	정성호
왕인순	윤지아	이동훈	이송희	이은정	이혜경	장수홍	정수미
우남선	윤지안	이동희	이수련	이은주	이혜민	장숙영	정수진
원미혜	윤지우	이라영	이수빈	이은주	이혜원	장연진	정수희
원선아	윤진영	이루오	이수연	이은행	이혜진	장영미	정숙
유경모	윤형숙	이명순	이수이	이은희	이호경	장영석	정승호
유경미	윤호준	이문숙	이수정	이이섭	이호선	장예지	정승희

개인 기부자

정아현	조병준	채은경	최현호	허윤희	황현아
정영지	조보원	채현자	최형미	허해영	황훈영
정원윤	조복란	천소연	최형철	현준식	롯데카드
정원주	조선혜	최경애	최혜리	홍기태	포인트기부자
정유경	조성덕	최광식	최호식	홍미리	무기명기부자
정유진	조성희	최권호	최효정	홍미영	해피빈기부자
정윤경	조수용	최규복	최효진	홍미정	
정윤희	조승연	최남미	최희경	홍미희	
정은자	조아라	최동길	피선희	홍상아	
정은화	조연우	최명진	하미선	홍상욱	
정인하	조영한	최문영	하민정	홍석준	
정재실	조예슬	최미애	하영선	홍세희	
정재호	조윤세	최상국사세	한상진	홍수연	
정정수	조인자	최세은	한수빈	홍순웅	
정지원	조임중	최선아	한승연	홍승아	
정진희	조준경	최선열	한승희	홍승택	
정창근	조지원	최선희	한애리	홍영희	
정창남	조진경	최세훈	한예림	홍은채	
정청자	조진희	최수경	한일순	홍인숙	
정초윤	조천기	최수원	한정빈	홍정아	
정해영	조혁종	최순복	한정연	홍지나	
정현석	조형	최순임	한정옥	홍지창	
정혜민	조흥식	최시현	한진희	홍진선	
정희경	주해은	최영서	한창호	황금희	
정효자	주혜명	최영준	한태희	황나래	
정효지	지상구	최유경	한혜경	황미영	
조경미	지인희	최유진	한혜린	황병덕	
조경숙	진해리	최은경	함영진	황서영	
조권중	차경애	최은정	허목화	황선미	
조나연	차승현	최인이	허미영	황윤옥	
조덕희	차인순	최인희	허소연	황은주	
조동환	차진승	최정은	허소정	황은진	
조미	차혜민	최지혜	허소희	황주연	
조배원	채용석	최진실	허우석	황준협	

기업 및 단체

(주)덕수엔지니어링

(주)에이저아시아소사이터티

(주)여성신문사

(주)호성투어

교보자산신탁(주)

교집합

농협은행(서교동지점)

레벤심리상담코칭연구소

부산한부모가족센터

사단법인 루트임팩트

생활건축 건축사사무소

여수중앙여자고등학교학생일동

울산여성의전화

원츠인

주식회사 꾸림

찬아카이브(CHANARCHIVE)

성평등사회조성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성평등기금 조성 나눔캠페인

2026년 6월~7월

2026 W액션 나눔 캠페인

차별과 폭력없는 세상을 위해 나눔으로 함께해요!

[나눔문의] 070-5129-5442

[나눔계좌] 농협 1279-01-000251(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 사업 소개

한국여성재단은 딸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1999년 12월,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해왔습니다. 나아가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을 위한 민간공익재단으로서, '딸들에게 희망을' 만들기 위한 한국여성재단의 열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

성차별 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통해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성단체 활동을 지원

- 여성단체 및 차세대 페미니스트 활동 지원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 여성과 아동의 안전한 폭력 없는 사회를 위한 폭력 예방 및 해결 지원사업
- 긴급 여성 이슈 대응을 위한 수시지원사업
- 여성운동 생태계조성사업 Brave Chages
- 젠더폭력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식을 높이는 젠더폭력 대응활동 지원사업

여성인권보장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여성들의 자립과 지지체계 구축을 지원

- 탈성매매 여성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봄빛 장학사업
- 여성가장·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여성건강지원사업
-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힘내라 딸들아!

여성 임파워먼트

여성NGO 활동가와 취약계층 여성의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도전과 성장을 지원

- 여성활동가 역량강화를 위한 유한킴벌리 여성NGO 장학사업
-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임팩트 조성사업
- 자립준비 여성청년 역량강화 지원사업 We are Future Makers
- 여성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 사진·영상 예술인 지원사업

다양성 존중과 돌봄사회 지원

성별, 계층, 인종, 세대 간 다양성을 존중하고,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

- 양육미혼모지원사업 With Mom Project
- 이주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한부모 이주여성 지원사업
- 다양성 존중사회를 위한 이주여성 리더발굴 지원사업
- 해외 여성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고사리손 기금 지원사업
- 싱글맘 자기돌봄을 위한 싱글맘 나다운 PLUS+ 지원사업

나눔 문화 확산

다양한 여성들이 잠재력을 펼칠 수 있는 성평등 사회를 위한 기금 조성 및 나눔문화 확산

- 성평등사회를 위한 여성공익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성평등기금캠페인
- 다양한 여성들의 삶을 응원하는 한국여성재단 활동을 위한 W기금캠페인
-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폭력없는 사회를 위한 SOS기금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여성가장, 여성공익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기금
- 아시아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고사리손기금

